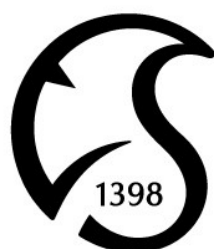


논술 시험 (인문 계)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술시험 (인문계)

[문제1] <제시문1> ~ <제시문3>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40점)

<제시문1>

만일 개별성의 자유로운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특별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문명, 지식, 교육, 문화 등과 같은 용어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런 모든 것들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조건임을 깨닫는다면, 자유를 가벼이 여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별성과 사회적 통제 사이에 적절한 선을 긋는 일이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들 다수가 자발성을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의 일부로서 간주하는 것은 고사하고,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보고 경계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자기만의 관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시점이 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이 경험의 중심이자, 주관성의 초점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그만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 있어서 우리는 늘 그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사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다.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생각에 그들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이에게 인간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각 개인에 내재한 인간성에 일련의 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성을 향해 어떤 태도, 즉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뜻일 것이다. 이 인간성에는 이성만 포함된 것은 아니다. 욕망이나 충동에도 각자 나름의 특성이 담겨 있으며, 각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충동을 일정 정도로 느끼는 것이 위험하거나 크게 나쁜 일이 아니다. 욕망과 충동 역시 신념과 자제 못지않게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간에게는 무엇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인간의 삶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간 그 자체이다. 인간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내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보다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 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것들을 획일적으로 묶어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전제 아래 잘 가꾸고 발전시킴으로써 인간은 더욱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창작물이 창작자의 성격을 반영하듯이, 인류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한껏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인간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삶도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지며 활력이 넘칠 것이다. 고귀한 생각과 고결한 감정을 더욱 복돋워주게 되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연대의 끈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각자의 개별성이 발전하는 것과 비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며, 또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자기 존재에 대해 더욱 충만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제시문2>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공급, 소득 재분배와 같은 활동들은 국가가 조직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풍요로운 사회는 전부 국가로 조직되어 있고, 국가가 없는 사회는 전부 극도로 궁핍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적대시하는 이데올로기들이 있다. 지금 가장 영향력이 큰 반(反)국가 이데올로기는 첨단기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표방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공식 통화에 등을 돌릴 테니 국가가 주관하는 국정 화폐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갈아치울 것이다”, “새로 출현하는 각종 인터넷 편의 도구를 갖춘 슈퍼맨 같은 개인들이 저마다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할 것이므로 국가가 강제하는 규제는 무시당하거나 무력해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성사되는 개인 대 개인의 연결이 공간적으로 제약되는 국민 국가를 갈아치울 것이다”, “산업 세계의 정부 간섭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모두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대한 전체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윤리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더 우월할 것이다.” 이것이 실리콘밸리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자신만만한 미래상이다.

논술시험 (인문계)

이들의 생각은 구체적으로는 최근의 기술적 조류인 메타버스(Metaverse)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같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3차원 가상현실 공간을 말한다. 기실 메타버스는 기술결정론자들의 꿈의 공간이라 할 만하다. 메타버스를 기술의 측면으로만 바라보면 인류의 해방을 돕는 유토피아적 기획으로 읽히게 마련이다. 인종, 성별, 나이, 외모, 국적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것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해방의 공간이자 역사적 고통과도 단절할 수 있는 이상적 도피처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획의 이면을 읽어내지 못하고 도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지닌 정치적 이슈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1995년 리처드 바브룩 등은 메타버스의 탄생이 왜 세계 첨단기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열망이자 필연일 수밖에 없는가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바브룩은 실리콘밸리 이데올로기의 욕망이 향하는 지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실리콘밸리의 이데올로기는 정보테크놀로지가 개인에게 권능을 부여하고 개인의 자유를 고양하며, 또한 국민 국가의 권력을 근본적으로 축소한다고 주장한다. 현존하는 사회적·정치적 및 사법적 권력구조는 자율적인 개인과 그들의 소프트웨어 사이의 제약 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대체되면서 사라질 것이다.” 실제 유명 기업의 임원인 존 카맥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가상현실(VR)의 언약은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메타버스 예찬론자이기도 한 그는 기술기업들이 창조한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만 고통 없는 인류,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파한다. 아바타처럼 자신의 모습을 언제든지 변형할 수 있고 실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와 제약, 갈등과 고통과 이별할 수 있기에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페이스북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특히 페이스북은 미 연방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하게 조여오고, 애플과의 경쟁에서 패한 뒤로 메타버스 기술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페이스북의 눈에 현실세계는 너무나 비대한 국가권력이 자유를 옥죄고 있고, 회사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눈엣가시 같은 경쟁기업들이 많기에 자신만의 메타버스에서 그들만의 통치체제에 따라 유토피아적 가상 행성을 만들려는 욕망을 불태우는 중이다. VR의 침체기를 넘어 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기술세력이 권력을 쟁취하고 인류를 통치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해방구일 수밖에 없다. 그 공간에서는 정부에 불려 다닐 일도 없고 정부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행성이다. 실리콘밸리 이데올로기가 페이스북 특유의 반국가주의적 철학으로 스며들고 있는 지금, 메타버스 마케팅의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제시문3>

외적의 침입과 상호 간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통의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 모두의 ‘인격’(人格)을 지니는 한 사람 혹은 합의체를 임명하여, 그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던, 혹은 백성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던, 각자가 그 모든 행위의 ‘본인’(本人)이 되고, 또한 본인임을 인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의지를 그의 의지에 종속시키고, 개개인의 다양한 판단들을 그의 단 하나의 판단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의 혹은 화합 이상의 것이며,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만인이 만인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과 같다. “나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이 사람 혹은 이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할 것을 승인한다. 단 그대도 그대의 권리를 양도하여 그의 활동을 승인한다는 조건 아래.”

이것이 홉스가 말한 국가의 본질이다. 홉스는 이 인용문에 이어서 국가를 “다수의 사람들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각자가 그 인격이 하는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국가란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권력을 모두 양도하기로 합의하는 신의계약에 따라 설립된 ‘인위적 인격’으로, 평화와 공동방위의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힘과 수단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국가는 다수의 인간이, 상호 평화롭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만인 상호간에 합의하여 다수결에 의해 어느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

논술 시험 (인문계)

에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사람 혹은 합의체에 찬성투표한 자나 반대투표한 자나 모두 똑같이 그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승인하기로 ‘신의계약’을 체결할 때 설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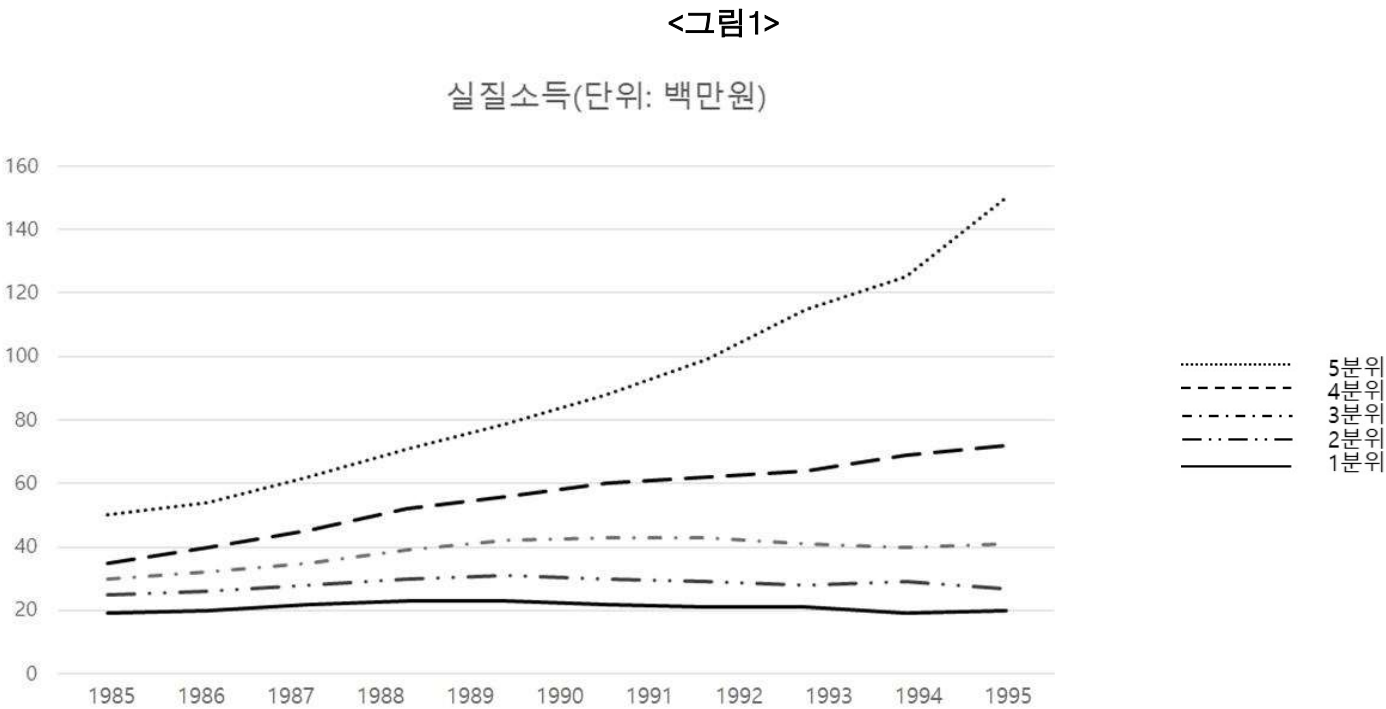
이와 같이 국민들이 신의계약을 통해 그들의 모든 권력을 대표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설립된 주권 곧 국가권력은 절대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국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로 주체적으로 합의하였고, 계약의 주체로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홉스는 이러한 논거들에 기초하여 절대주권론을 주장한다. 이러한 절대주권론의 옹호는 사회철학자들이 홉스를 비판하는 요점의 하나이다. 홉스 자신도 이렇게 지나치게 강력한 절대주권에 대한 반론이 없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겪는 그 어떠한 극심한 불편도 내란에 따르는 비참과 공포의 재난에 비하면, 또한 법에 대한 복종도 없고, 약탈과 복수를 못하도록 그들의 손을 묶는 강제력도 없이, 즉 지배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열 상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절대주권론을 옹호하는 홉스의 답변이다. 인간의 이기성이라는 정념은 너무나 견고한 토대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 권력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제어할 수가 없으므로, 주권의 절대성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절대주권론에 관한 이러한 주장은 그의 도구적 이성관에서 도출된 논리적 귀결이며 다소 극단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오늘날 상황에서도 여전히 상당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논술 시험 (인문계)

[문제2] 아래 <사례1>과 <사례2>를 토대로 [문제1]의 두 입장을 각각 비판하시오.(40점)

<사례1>

국가 A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985년도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전격 시행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고 10년 동안 국가 A에는 아래 <그림1>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주: 그림의 분위는 국민의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누어서 분류한 계층을 의미. 5분위는 최상위 20%, 1분위는 하위 20%를 의미함.

<사례2>

전통적으로 민권보다 국권이 우위에 있던 국가 B는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강조하는 국권 우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민권우위 사회로 변신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첨단 기술산업 분야의 신규 특허출원 건수도 급증했다. 또한,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줄어들어 공업중심 경제구조로 재편되었다.

[문제3] [문제1]의 제시문과 [문제2]의 사례를 모두 활용하여 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시오.(20점)